
 <b>인천광역시</b>		<b>보 도 자 료</b>			
		배포일자	2022년 12월 26일(월) 총 2매		
담당 부서	보건환경 연구원	담 당 자	• 삼산농산물검사소장 김지형 ☎440-5601 • 남촌농수산물검사소장 김명희 ☎440-8514 • 담당자 김선희 ☎440-5602		
사진(이미지)	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
보 도 시 점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**인천시, 철저한 농산물 관리로 시민 먹거리 안전하게 지켜내**  
**- 2022년 농산물 안전성 97.0% 적합 -**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인천지역 경매 전 및 유통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22년 총 4,514건에 대해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, 4,378건(97.0%)이 적합했다고 밝혔다.

유통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삼산·남촌 농산물도매시장, 마트, 직거래 매장 등의 유통 농산물뿐만 아니라 학교, 어린이집 등의 공공 급식 농산물까지 인천 전역에 유통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, 방사능 및 중금속 등을 검사했다.

잔류농약 검사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고춧잎, 쑥갓 등 채소류 124건과 향신식물인 고수 9건, 과일류 중 바나나·복숭아·구기자 각 1건으로 총 136건이며, 방사능과 중금속 등의 유해물질 검사에서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부적합 농산물 2,877kg은 즉시 전량 압류·폐기해 유통을 사전 차단했고,

생산자를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.

잔류농약 부적합률은 지난해 1.1%에 비해 올해 약 2.7배 증가하였는데, 이는 2021년 10월부터 농산물 잔류농약 시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검사 항목이 변경되고 미량분석에 더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법을 적용한 결과다.

2023년에는 잔류농약 검사항목을 확대해 농산물 안전성을 높이고 검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.

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“농산물 안전성 검사가 강화되고 정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시민의 먹거리가 더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. 우리 연구원에서도 안전한 농산물 유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며 농산물 관리를 더욱 강화 하겠다” 고 말했다.

<잔류농약 분석 사진>

